

데스크시각



김미은 문화부장

‘호가호위’하는 자, 경계하라

종 결정과 책임은 시장의 몫이겠지만 '2인 3각'처럼 각자의 특장을 살려 '큰 그림'을 그리며 문화도시의 위상을 다져 가는 것도 관찮지 않을까 싶다.

요즘 지역 문화계 초미의 관심은 차기 광주시립미술관장 자리다. 미술계 인사들은 물론이고, 다른 분야 예술인들과 문화 활동가들이 관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자리가 문화와 관련한 첫 공공기관장이라는 점 때문이며 향후 광주시 문화 관련 인사와 정책의 '기능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시립미술관장 후보 무려 20명?

10여 일 전까지 내가 들은 자천타천 후보자만도 15명이나 됐다. 전직 교수들, 전업화가, 큐레이터 출신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와 들어 보니 20명까지 늘어났다. 이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무늬만 공모' 아닌 가하는 점이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들러리 서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이다보니 초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그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다. 문화계가 끊임없이 문화부시장 신임을 요구해 온 것도 '책임 있는 전문가'가 문화 정책을 주도지휘하며 문화도시의 입지를 다져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을 것이다. 물론 최

는 말이든 끊임없이 나왔다. 이 부시장이 임명된 후에는 무게 중심이 그에게 쏠리면서 '부시장에 대한 구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사실 '무늬만 공모'는 우리 지역에서 만 있는 일은 아닐 터이다. 혈연·학연·지연으로 얽혀진 대한민국에서 '인맥'은 큰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술한 인물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요직에 있었다. 선거로 뽑힌 기관장이 자신의 철학과 맞는 사람과 일을 도모하는 건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자리에 앉힌 인물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위치가 적정한가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등을 역임한 이 부시장은 지역 문화계에 관심이 많다. 문화 예술인들과 소통하게 어울리는 편이어서 소박한 문화 현장에서 가끔 마주치기도 했다. 탁상공론이 아닌,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문화 정책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연결 고리가 그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예전 문화부에 들어온 책 중 '공직자를 위한 목민심서 따라 쓰기'가 눈에 띄었다. 200년이 된 '목민심서' 중 공직자가 새겨야 할 100가지를 '필사'해 보는 책이다. '인재는 그 사람의 능력에 맞는 직책에 있게 해야 한다' '눈을 사방으로 크게 뜨고 귀를 사방으로 열어 놓아라' '아

침을 잘하는 자는 충성스럽지 못하고, 간정(諛靜·국왕의 과오를 비판하던 일)을 좋아하는 자는 배반하지 않는다' '지도자의 자리 곁에 쓸데없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등등 새길 대목이 많았다.

초대 광주문화부시장의 역할

문화관을 취재하며 가장 씁쓸했던 것 중 하나가 기관장 측근임을 과시하며 '행세'하는 이들이었다. 사리사욕을 챙기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실력자를 내세워 호가호위(狐假虎威)하려는 이들이 속아 낼 줄 아는 것도 리더의 능력일 것이다.

8월 말이면 미술관장 모집 공고가 뜬다. 지역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들의 지원이 몰릴듯이 쏟아지면 좋겠다. 다른 문화 관련 인물을 뽑을 때도 응모자가 쇄도하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누군가 "문화 쪽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싶는데 어떤가요?" 물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신이 뛰어난 능력이 있고, 열심히 일하려는 열정을 갖았다면 정정당당히 겨뤄 반드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이다. 문화도시 광주는 이렇게 멋진 도시다"라고.

그 '처음'을 광주시립미술관장이 멋지게 장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mekim@kwangju.co.kr

기고



김형주 광주시립민속박물관 학예실장

광주 대표 음식, 문화관광 자원 만들려면

식을 대상으로 그 가운데 하나를 정한다는 것은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주의 주요 향토 음식으로는 송정떡갈비, 용봉탕, 애저찌, 무등산 보리밥, 찹쌀사 닭요리, 우삼탕 등이 있는데, 각기 나름대로 강한 상징성과 독자성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품목이 선정되면 다른 품목에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병렬적인 상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의 대표 음식을 발굴·선정해 육성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일정 규모의 음식 문화 전문가 그룹을 설정하고 그들에게 포괄적인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개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에게 전통 음식 문화 자원을 심도 있게 조사·연구하도록 하여, 여기서 4~5개 향토 음식의 원형을 발굴해 이를 더욱 압축하고 다른 전문가 그룹의 검증 거쳐 최종적으로 시민의 기호도를 반영하여 선정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와 유사한 다른 방식으로 는 소수의 개별적인 연구자들을 선정해 각각 한 품목의 전통 향토 음식을 발굴해 제출하도

록 하고, 이를 놓고 몇 단계의 치밀한 평가와 압축 작업을 벌인 후에 최종적으로 한 가지 품목을 육성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광주 대표 음식의 발굴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먼저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핵심 문화관광 자원의 기반이 확충된다. 근래 들어 문화재와 사적지, 잘 정비된 관광 종합단지, 여가와 휴식이 결합된 복합 레저 시설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 음식을 즐기면서 특산품도 만들어 보는 등의 이색적인 참여체험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우리 속담처럼 보기 좋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고자 하는 사람들의 원초적 본능이 내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먹방' 영향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유명한 지역 음식을 찾아 내어 음식에 담긴 유래와 만드는 과정을 관찰하고, 마지막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폭풍 흡입'이란 말이 무색하게 맛깔나게 먹는 모습을 보여 주며 시청자들의 침샘을 여지없이 초토화시켜 버린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원초적 음식 자원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실

감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로운 향토 음식을 개발 보급하면 점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음식점이라는 1차적 장소에 국한시키지 않고 출장 뷔페, 도시락 등을 만드는 외식 업체로 확대하고 나아가서 유통 매장에서도 판매하는 밀폐 포장 제품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편, 지역의 향토 음식이라 해서 모두 전통 음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의 연륜을 쌓으면서 그 음식만의 독특한 위상과 존재감을 대중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품목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최소한 100년은 지나야 전통 음식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 음식을 발굴, 개발했어도 전통 음식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확보가 이뤄지려면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광주 대표 음식의 선정 작업이 신속하게 실행되어 중요한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도약·정착과 더불어 강력한 도시 브랜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고



박안수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위라밸과 소확행

합리적인 소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예전에 어느 정치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저녁이 있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녁 먹거리의 금전적인 부담을 경계해야 하는 시민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일부 직장인들이 아직은 근무 시간 단축으로 남아 돌게 되는 시간의 적절한 배분에 고민들을 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IMF 이후 지난 5월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으며 과거에 비하여 가계와 기업의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들 한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회적 현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가고자 많은 정책들을 펴고 있으나 아직은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형국이 아닌 듯 싶다. 아무튼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위라밸과 소확행이 가지고 있는 뜻은 전혀 다르지만 어쩌면 원인과 결과에서 많은 유사한 점들을 발견할 수도 있다고 본다.

원래 소확행은 수년 전 일본의 어느 작

가 이야기 했던 것이 대만과 선진 유럽의 여러 나라를 지나 오면서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미래의 불확실성과 특별함이 아니고 지금 일상의 평범함에서 찾는 행복이며 강하고 큰 것보다는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는 빈도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도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았던가. 우리의 일상은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주위에 수많은 세 일 클로버의 작은 행복들이 널려 있는데 어쩌다가 운 좋게 맞게 되는 네 일 클로버의 행운만을 좇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일상에서 그리고 주위에서 찾는 작은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닐 것이다. 남도에는 지리산, 무등산을 비롯한 국립공원이 여러 곳이었다.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곳이다. 이 또한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 뒷산 다녀오듯 국립공원을 다녀오거나, 한려수도의 어느 작은 섬을 걸은 뒤 먹는 보리밥 한 그릇과 시원한 음료수

한잔은 작지만 확실한 행복인 진정한 소확행의 진수일 것이다.

이 더위에도 시원한 대형 서점이나 공공 도서관에서 생각하고 마음에 와 닿은 좋은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행복해 질 수 있을 것이며, 가성비(價性費)보다는 가심비(價心費)에 더 많은 무게 중심을 두고 점심 뒤에 마시는 커피 한잔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도시에서 뒷밭을 가꾸거나 농장으로 캠핑을 떠나는 팜핑은 물론, 농장과 휴가를 결합한 팜캠프도 인기가 많다. 아예 농촌으로 유학으로 떠나거나 농촌에서 수일간 이사를 하여 사는 것도 자기만의 케렌시아일 것이다.

온 가족이 둘러 앉은 행복한 저녁 밥상, 반려동물과의 한가한 산책,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격의없는 대화, 퇴근 후에 동료들과의 삼삼씩 파티는 많은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소확행일 것이다.

먼 미래의 불확실하고 거창한 행복보다는, 지금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찾는 나만의 소확행이 늘어나기를 희망해 본다.

社說

보수 정권의 전남 SOC 차별 대물림해서야

경전선의 영남 구간은 전철화가 완료된 지 오래인데 호남 구간은 수년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전선은 호남선 광주송정역과 경부선 삼랑진역을 연결하는 간선 철도 노선으로, 호남 구간의 전철화 사업은 수년째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광양항 낙포부두 리뉴얼 사업(총 사업비 2006억원)도 정부의 예타 조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전남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6조8000억원 규모로 정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지역 숙원이자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SOC 사업들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기재부의 논리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고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일부러 미룬 뒤 국회 심의 과정

에서 생색내기로 반영한다는 폼수 전략을 편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차별 대물림'이란 지적도 나온다. 부산-목포 해안관광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은 이전 보수정권에서 수립된 고속도로·국도 건설 계획과 국가철도망 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아 예산을 줄 수 없다고 한다. 과거 영남 중심의 예산 편성 탓에 소외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의 대물림인 셈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SOC 격차가 커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역 간 경제 집적기반 조성의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당장의 수요와 경제적 타당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한 발전 잠재력을 반영해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아쉽다.

전남 도내 고교 학사 관리 이리 엉망이러니

전남 도내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배점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학교 스스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필고사 때 정답이 없거나 복수인 문제를 출제하거나 정답을 인쇄한 채 배포한 학교도 있었다. 전반적인 학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2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 학사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A고교의 경우 2016·2017 학년도에 다섯 번의 지필고사를 치르는 동안 15개 과목, 18개 문제에서 정답 두 개이거나 아예 없는 문제를 출제하는 오류를 범했다. B고교는 담당 교사 부주의로 특정 과목 문제지에 서술 문항 3개의 정답을 인쇄한 채 배부하기도 했다.

수행 평가도 부실했는데 C고교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행 평가 배점 기준

을 임의로 변경했고, D고교도 평가 항목을 임의로 바꿨다가 적발됐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학교도 많았다. E고교와 F고교는 봉사 활동이나 체험 활동 당일 결석한 학생들이 참여했다고 기재했다가 발각됐다.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기재 사항도 G고교는 임의로 삭제했다.

지필 고사, 수행 평가, 학교생활기록부는 대학 입시 때 내신 성적이나 입학 전형의 기준이 된다 점에서 학생들의 진로와 직결된다. 이런 중요한 자료들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것은 학교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도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무엇보다 교사의 핵심 업무인 만큼 '부주의였다'거나 '착각이었다'는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동안 적발이 되어도 솜방망이 처분만 해 온 탓에 부실한 학사 관리가 반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교육 당국은 한시바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더위도 너무 덥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올여름이다. 가을에 접어들다는 입추(立秋)가 됐건만 여전히 폭염(暴炎)이 기승을 부린다. 여름철이면 광주가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는 '팜프리카'라는 신조어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에는 한반도 구석구석이 폭폭 제7면서 서울은 '서프리카', 대구는 '대프리카' 등으로 전국 각 지역이 모두 이 신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옛 선조들은 여름 무더위를 중극 고대염의 신인 염제(炎帝)를 불렀다. 겨울 추위는 흑독한 겨울을 의인화해 동장군(冬將軍)이라 했다. 겨울 추위는 고작 임금의 신하인 장군이라는 벼슬로 의인화했지만, 여름 더위는 장군보다 훨씬 위인 임금(帝) 칭호를 붙였다.

또한 겨울철 추위는 부딪쳐 이기자는 뜻으로 '극한(克寒)이란 말을 쓴 데 비해 여름철 더위는 오죽 견디기 힘들었으면 '피서(避暑)'라 했을까. 더위를 이기기 위해 부딪칠 것이 아니라 더위가 밀어닥칠 때는 피하라는 말이다. 그만큼 추위보다 더위가 견디기 힘들었음을 말해 준다.

올해 염제는 특히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광주 여름철 평균 기온은 1939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평균 기온이 26.4도, 평균 최고 기온은 31.9도로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됐던 1994년에 비해 0.2도, 0.1도 높았다. 24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폭염 일수는 올해 16.6일로, 1994년 여름(18.6일)에 비해 적지만, 당분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최장 폭염 일수마저 갈아치울 것으로 보인다. 폭염으로 온열 질환자 39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 피해

와 가축, 농작물, 어류 등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전 무더위를 염제(炎帝)가 아닌 '염재(炎災)로 불려야 할 만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은 재난에서 제외돼 있었다. 뒤늦게 정부와 국회에서 폭염을 재난에 포함하는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폭염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 정비와 지원이 시급하다.

/최권일 정치부 부장 cki@kwangju.co.kr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정 치 부 220-0632 경 제 부 220-0663 사 회 부 220-0664 전 남 본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61 여 론 매 체 부 220-0652 예 황 부 220-0692 사 진 부 220-0693 체 육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0-0195) 업 무 국 220-0551 (FAX 220-0195)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b>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b>			